

고려후기 西福寺 觀經十六觀變相圖의 天台淨土信仰의 해석

이 승 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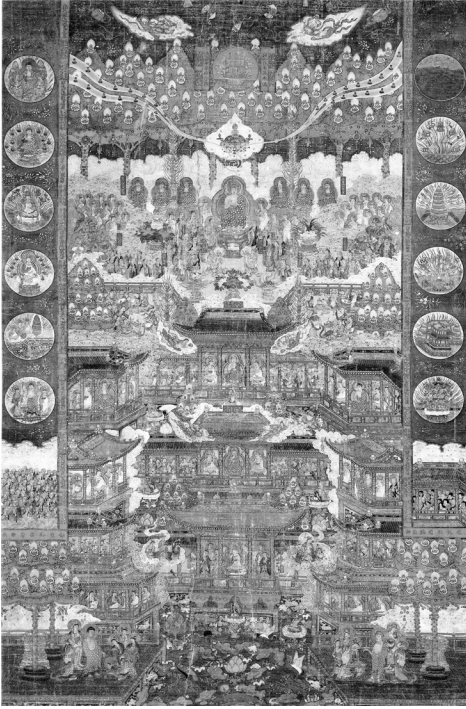
- I. 머리말
- II. 16관변상도의 화면구성과 도상
- III. 16관 도상의 원류와 정토신앙적 배경
- IV. 정토도상의 천태신앙적 요소와 해석
- V. 맺음말

I. 머리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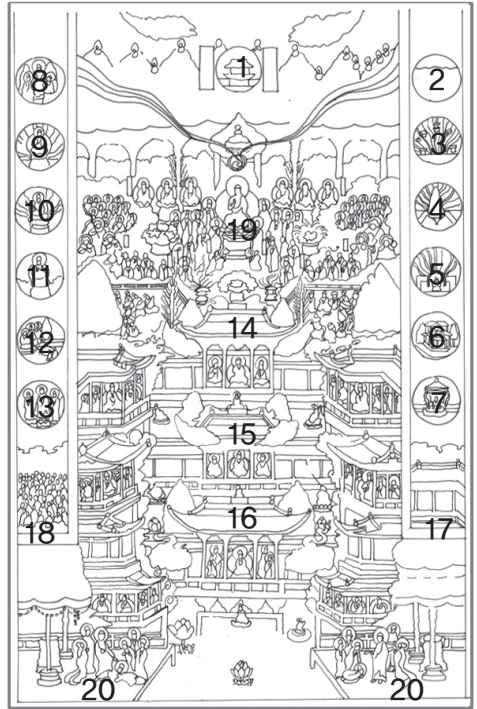
淨土는 현실세계인 穢土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을 위한 청정하고 아름다운 구원의 장소로, 누구나 정토왕생에 관한 염원을 가지고 있다. 수많은 승려들은 대승초기부터 정토의 개념을 규정하고 정토에 도달하기 위한 각종 수행법을 의례화하였다. 염불, 간경, 임종행의, 관상수행 등의 각종 수행의식은 정토에 도달하기 위한 중요한 행법으로, 사람들은 현세에서 수행을 하며 죽음 이후의 세계를 준비하였다.

觀相, 修行은 시각적인 상징물을 觀想함으로써 극락행을 추구하는 중요한 행의로서 시각적 대상물을 필요로 한다. 觀無量壽經變相圖(이하 觀經變相圖)는 바로 관상수행을 위해 조성된 불화로, 『觀無量壽經』(이하 『觀經』)의 序分의 내용을 형상화한 <序分變相圖>와 本分의 내용을 그린 <16觀變相圖>로 나뉜다. 『관경』에서 설한 아미타의 불세계를 16장면으로 나누어 형상화한 <16관변상도>에는 극락의 아름다운 풍경과 불·보살의 眞身, 왕생자가 극락에 왕성한 모습까지 자세히 그려져 있어 극락왕생에 대한 수행자의 강한 염원을 담고 있다.

* 홍익대학교



도1 <觀經十六觀變相圖>, 高麗 14세기 초, 絹本彩色, 202.8×129.8cm, 일본 福井縣西福寺 소장



도면1 도 1의 도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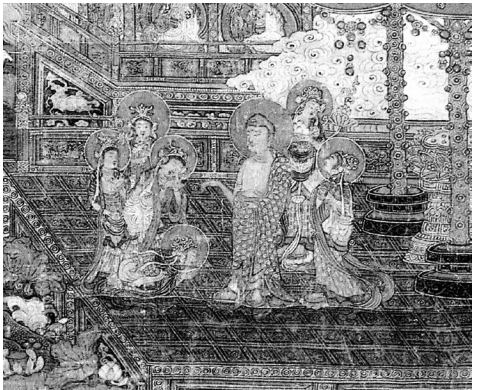
- | | | | | | |
|-------------|--------------|------------|------------|---------|--------|
| 1. 日觀 | 2. 水觀 | 3. 地觀 | 4. 樹觀 | 5. 池觀 | 6. 總觀 |
| 7. 華座觀 | 8. 像觀 | 9. 佛觀 | 10. 觀音觀 | 11. 勢至觀 | 12. 寶觀 |
| 13. 雜觀 | 14. 上品三輩之觀 | 15. 中品三輩之觀 | 16. 下品三輩之觀 | | |
| 17. 四疑九夫邊之處 | 18. 聲聞大眾諸上善人 | 19. 釋迦說法會 | 20. 授記圖 | | |

고려후기의 <16관변상도>는 현재 4점이 알려져 있는데,¹ 이들 작품은 세련되면서도 화려한

1 국내외학자들이 고려 후기 관경변상도에 관해 연구한 성과를 시대순으로 나열하면 다음과 같다. 문명대, 「高麗 觀經變相圖의 研究」, 『佛敎美術』 6(東國大學校博物館, 1981), pp. 3-25. 同著, 「韓國의 淨土美術」, 『韓國 淨土思想研究』(불교학술연구소, 1997); 柳麻理, 「中國 敦煌莫高窟(17窟)發見의 觀經變相圖(마리 기메 東洋博物館藏)와 韓國 觀經變相圖(日本 西福寺藏)의 比較 고찰」, 『講座美術史』 4(한국미술사연구소, 1992), pp. 41-77. 同著, 「韓國 觀經變相圖와 中國 觀經變相圖의 比較 研究」(東國大學校 大學院 博士學位論文, 1993). 同著, 「麗末鮮初 觀經十六觀變相圖」, 『미술사학연구』 208(1995), pp. 5-37. 同著, 「1323년 4월作 觀經十六觀變相圖(일본 隣松寺藏觀經圖의 研究(Ⅲ))」, 『文化財』 28(文化財管理局, 1995.12); 송은석, 「高麗 後期 觀經十六觀變相圖의 研究」(서울대학교 대학원 고고미술사학과 석사학위논문, 1995); 河原由雄, 「淨土曼荼羅から迎攝圖へ—高麗·李朝觀經變相圖의 展開」, 『日韓兩國所韓國佛敎美術共同調査研究 研究成果報告書』(奈良國立博物館, 1993), pp. 47-52; 井手誠之輔, 「絹本著色 觀經十六觀變相圖 一幅」, 『茨城의 文化財』(茨城縣敎育委員會, 2002). 同著, 「高麗佛畫의 世界—東아시아美術における 領分とその 諸相」, 『國華』 1313(2005.3), pp. 19-37; 大原嘉豊, 「觀經十六觀變相圖」, 『國華』 1313(2005.3), pp. 40-41; 이승희, 「高麗後期 淨土佛敎繪畫의 研究—天台·華嚴 신앙의 要素를 중심으로—」(홍익대학교 대학원 미술사학과 박사학위논문, 2011. 6), pp. 70-107.



도1-1 〈觀經十六觀變相圖〉의 釋迦說法會



도1-2 〈觀經十六觀變相圖〉의 하단 아마다수기 장면

조형적 아름다움 뿐 아니라 고려후기의 독특한 정토신앙 경향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매우 주목된다. 4점의 〈16관변상도〉 가운데 일본 福井縣 西福寺 소장 의 〈16관변상도〉는(도1) 『관경』에서 실한 16관의 구성과 도상이 명확하게 표현되어 있어 고려 후기 16관변상도를 해석하는 기준작이라고 할 수 있다. 서복사 소장 〈16관변상도〉에는 『관경』에서 제시한 16관 외에 상단에 부처님의 설법회장면과(도1-1) 하단에 수기장면이 표현되어 있는데(도1-2), 이 두 장면을 모두 그린 〈16관변상도〉는 서복사본만이 유일하다. 이들 장면에 표현된 도상은 고려 후기 정토신앙과 사상적인 면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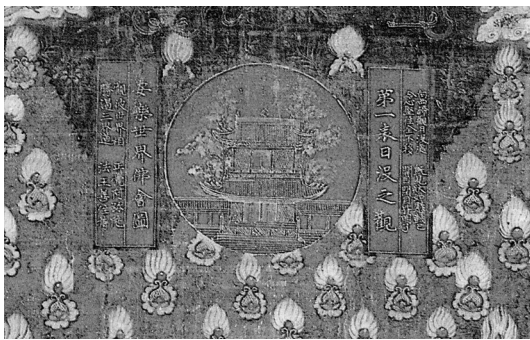
새롭게 해석할 수 있는 중요한 요소로 주목할 필요가 있다.

본 논문에서는 서복사 소장 <16관변상도>의 화면구성과 『관경』 외의 요소에 중점을 두어 고려 후기 관경변상도의 원류와 정토신앙의 배경을 규명해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고려와 시대적으로 가까운 송대의 관경변상도와 비교 고찰하여 서복사 <16관변상도>의 원류를 파악하고, 다음으로 설법회와 아미타수기장면의 도상분석을 통해서 고려 후기 성행했던 천태 및 화엄정토신앙과 도상의 의미를 분석해보도록 하겠다.

Ⅱ. 16관변상도의 화면구성과 도상

西福寺 소장의 <16觀變相圖>는 세로 202.8cm, 가로 129.8cm의 비교적 커다란 비단바탕에 극락의 16장면이 그려져 있다(도 1). 이 불화는 화기가 남아 있지 않아 정확한 조성연대와 발원자 및 시주자 등 당시의 조성배경을 알 수 없다. 그러나 화려하면서도 우아한 색감과 안정된 구도와 세련된 표현 등을 볼 때 실력이 우수한 화원이 그렸을 것으로 생각되며, 旁題와 16觀의 偈頌 및 마무리선을 모두 고가의 금니를 사용한 점으로 미루어 보아 이 불화의 후원자는 당시에 상당한 재력을 갖춘 고위 승려나 귀족 계층이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이 불화의 전체화면은 매우 질서정연하게 구성되어 있다. 화면의 구성을 16관의 순서에 따라 살펴보면(도면 1), 화면 맨 위 중앙에 전각이 그려진 붉은 해로 묘사된 日觀(1관)이 자리하고 있다(도 1-3). 화면 오른쪽 청색 장책 안에는 6개의 원형들이 있고 그 안에 水觀(2관)부터 華座觀(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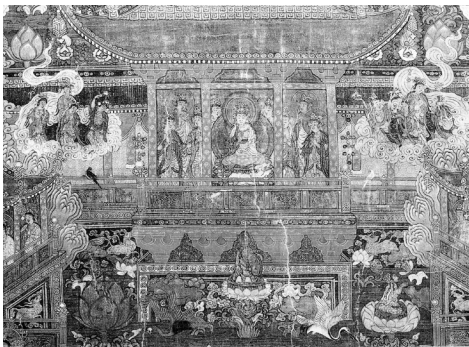
도 1-3 <觀經十六觀變相圖>의 일관과 계승

관)까지 물, 땅, 나무, 전각, 대좌로 이루어진 극락세계의 신비로운 정경이 묘사되어 있다. 그 아래 “四疑九夫邊之處”로 명시된 곳에는 기와지붕 밑에 그리 밝지 못한 표정으로 표현된 승려와 남녀 속인들이 표현되어 있다(도 1-4). 이들은 네 가지 의혹에 빠진 범부들로 극락의 변두리에 태어나 오백년동안 수행을 한 후 부처님의 수기를 받게 되는 인물들이다.²

² “四疑凡夫四衆人疑情念佛致彼因邊中五百年受樂漸得金仙授記親”.



도1-4 <觀經十六觀變相圖>의 四疑九夫邊之處



도1-5 <觀經十六觀變相圖>의 下品(16관)의 왕생자

화면 왼편의 장책에는 像觀(8관)부터 雜觀(13관)까지의 도상인 극락세계의 아미타삼존의 진신과 왕생자가 아미타삼존을 친견하는 장면이 표현되어 있다. 그 밑에 운집해 있는 61명의 승려들은 정각을 이루거나 쉬임없이 정진한 이들로써 지혜의 바다에 태어난 이들이다. 그 옆에는 금니로 이들을 찬탄한 계송이 적혀있다(聲聞大眾諸上善人讚頌).³

다시 화면 중앙의 상단으로 시선을 이동하면, 日觀 아래에 부처님의 설법회가 이루어지고 있다(도1-1). 설법주의 미간에서 좌우로 뻗어나간 광명에 여래들이 묘사되어 있고, 본존불의 뒤쪽으로는 육방불이 자리하고 있다. 본존불의 좌우에는 8위의 보살, 십대제자와 十六聖衆, 六大天王, 無量俱祇菩薩, 他方에서 온 諸菩薩이 운집해 있으며, 대좌의 앞에는 공양하는 두 인물이 공양물이 담긴 선반을 받치고 있다.

설법회 장면 아래에는 上品往生觀인 14觀, 中品往生觀인 15觀, 下品往生觀인 16觀이 내려가면서 순차적으로 묘사되어 있다. 각 관에는 전각 안에 아미타불과 관음, 세지 등의 보살이 자리하고 있으며, 그 앞에 왕생인들은

선악의 근기와 수행의 정도에 따라 보살, 승려 등의 모습으로 표현되어 있다.

하단에 위치한 하품왕생 장면에는 연꽃과 신령스런 동물이 자유롭게 노니는 蓮池가 표현되어 있고, 연지의 양편에는 왕생자가 接印을 받아 극락에 와서 아미타불에게 授記를 받고 있는 장면이 묘사되어 있다(도1-2). 왕생자는 보살의 형상을 한 인물로 합장을 한 채 무릎 꿇고 엎드려 경애를 드리고 있는데, 그 앞의 아미타부처님은 오른팔을 내려 왕생지를 향해 손을 내민 형상이다. 이는 손을 내밀어 佛果의 완성을 예언하는 장면으로, 수기장면 뒤쪽에 위치한 寶樹의 위쪽

³ “如來淨華衆 正覺花化生 天人不動衆 清淨智海生”.

에는 각각 “初生接引授記之處”, “初生接引摩頂之處”라는 방제가 기록되어 있다. ‘摩頂’은 손을 뻗어 정수리를 만진다는 의미의 동작을 강조한 용어로 授記와 같은 의미를 갖는다.

서복사 소장 <16관변상도>에는 화면의 대부분을 설법회와 구품왕생장면, 수기장면을 묘사 하는데 할애하였다. 이 장면들은 아미타극락세계의 정토세계와 아미타삼존불의 진신을 표현한 1관부터 13관보다도 많은 화면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 이는 작품의 화면 구성에도 중요한 영향을 미쳤다. 구품장면을 화면을 중앙에 배치하고, 『관경』에 없는 설법회와 아미타수기장면을 상하로 배치하였는데, 이는 당시 고려인들 특유의 정토신앙에 근거한 특별한 의도가 반영된 구성으로 생각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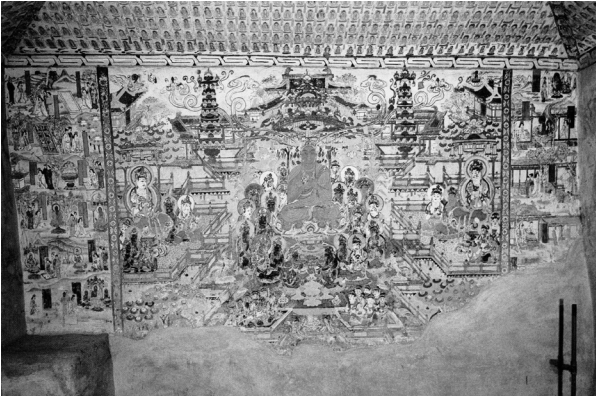
1관부터 16관까지 각 觀에 쓰여진 旁題와 偈頌은 대부분 『관경』에서 발췌한 7언절구로, 이 불화가 기본적으로 『관경』에 기반을 두고 제작되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하지만 日觀의 오른쪽에 “安樂世界佛繪圖”라는 방제 옆에 쓰여진 계송은 『관경』에 근거를 두고 있지 않아 눈여겨 볼 필요가 있다(도 1-3). 이 계송은 “觀彼世界相 正覺阿彌陀 勝過三界道 法王善往生”으로, 고려 후기 사람들의 정토왕생관과 정토인식을 반영하고 있어 당시 고려인들이 이 계송을 직접 지었던 것이라고 생각된다. 이 계송의 의미에 관해서는 IV-1에서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다.

Ⅲ. 16관 도상의 원류와 정토신앙적 배경

서복사 <16관변상도>의 천태정토신앙적 요소와 그 의미를 해석하기에 앞서 화면구성과 도상의 원류를 송대 16관변상도와 연관시켜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다. 서복사 <16관변상도>와 직접 관련이 있는 송대 <16관변상도>는 알려져 있지 않다. 하지만 송대에 <16관변상도>를 범본으로 제작한 <16관변상도가>가 일본에 전하고 있어, 이 작품을 통해 송대<16관변상도>가 제작되었던 상황과 당시 성행했던 정토사상과 신앙의 특징을 파악할 수 있다. 나아가 송대 정토신앙적 내용이 고려에 유입되어 서복사 <16관변상도>의 제작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도 살펴볼 수 있을 것이다.

1. 화면구성과 도상의 원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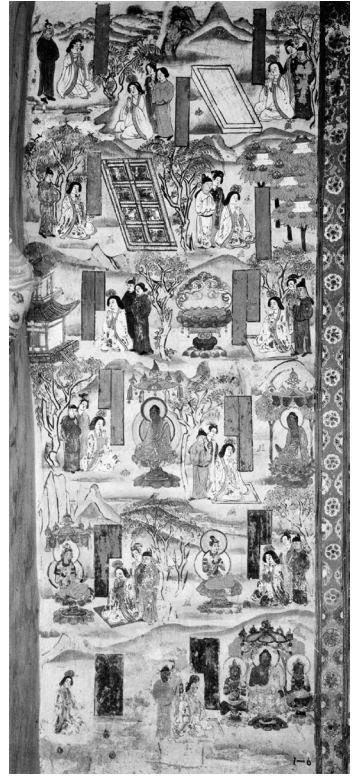
관경변상도는 중국에서 수·당대부터 조성되기 시작하여 盛唐代 도상과 형식이 정형화되었다. 唐代 관경변상도는 대부분 중앙에 아미타정토변상도를 배치하고, 그 주변부에 구획을 나누



도2 《阿彌陀淨土變相圖》, 盛唐, 敦煌 45窟



도3 《觀經十六觀變相石刻》, 南宋, 사천성 大足石窟 寶頂山大佛灣第 18號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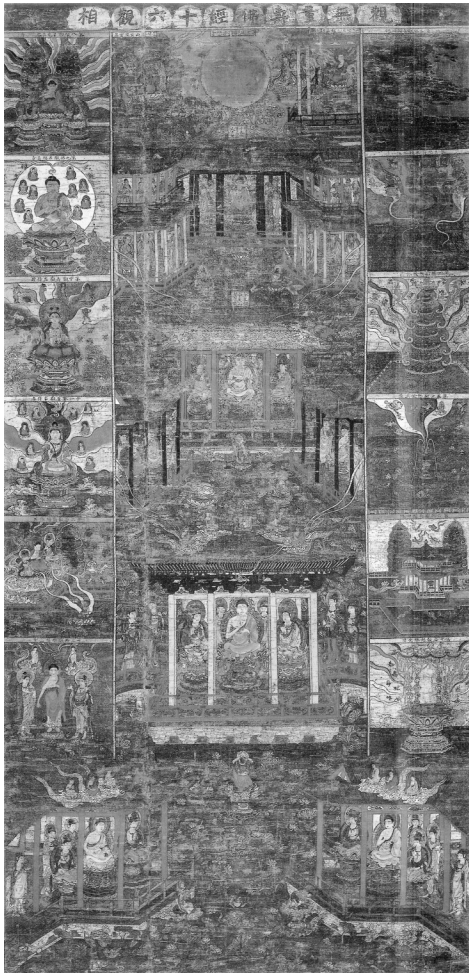
도2-1 《阿彌陀淨土變相圖》, 觀經十六觀變相圖 부분의 위대희왕비 표현

어 서분과 본분의 내용을 그렸다(도 2). 이는 16관 장면만을 독립적으로 구성한 서복사 <16관변상도>와는 완전히 다른 방식이다. 또한 돈황지역에서 제작된 당대 관경변상도에는 『관경』에서 실한 관상의 주체인 위대희왕비가 표현되어 있는데(도 2-1), 서복사 <16관변상도>에는 그렇지 않아서 두 작품의 도상적인 면을 비교 연구한다는 것은 무리가 있다.⁴ 따라서 서복사본의 화면구성과 도상의 원류를 파악하는데 고려와 시기적으로 가까운 송대의 <16관변상도>와 비교 고찰하는 것이 적절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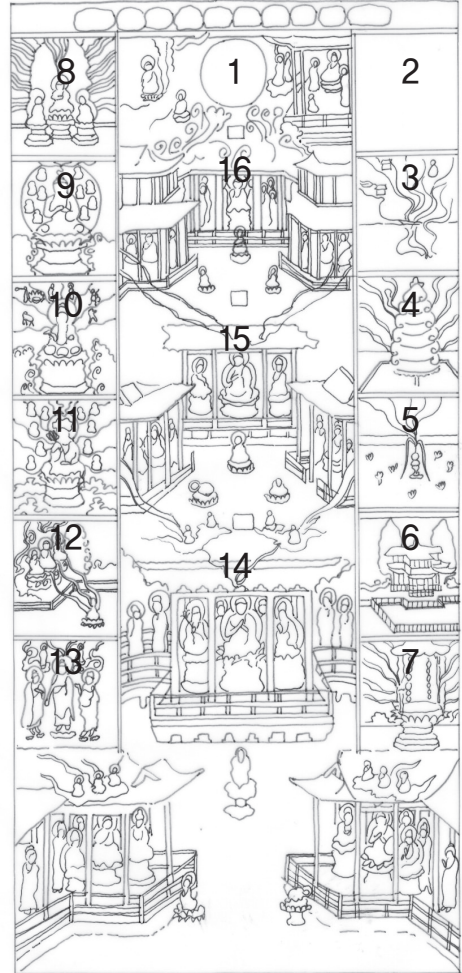
송대의 관경변상도는 회화 외의 작품으로 大足石窟 寶頂山大佛灣第18號를 비롯하여 사천 지역에 몇몇 예가 있으나(도 3) 서복사 <16관변상도>와 구성과 도상이 완전히 다르다.⁵ 서복사본

⁴ 이승희, 앞의 논문, pp. 70-74에 당대 돈황본과 서복사본이 직접 비교 불가능한 이유가 자세히 서술되어 있다.
⁵ 사천성 大足 寶頂山石窟의 <16관변상석각>은 중앙 상단에 극락세계의 교주인 아미타삼존을 크게 부각시키고, 하단에 극락구품장면을 배치한 형식이다. 아미타삼존의 수인과 극락구품에 표현된 아미타도상과 왕생자도상 등은 고려 관경변상도와 직접적인 연관성이 없다.

과 관련해서 살펴보아야 할 회화작품은 현재 일본에 전하는 나라 阿彌陀寺(아미다지) 소장 <16 관변상도>와(도 4) 교토 長香寺(쥬코지) 소장 <16 관변상도>이다. 먼저, 아미타사본의 구성을 살펴보면(도면 2), 상단에 日觀을 배치하고 일관의 좌우에 기사굴산에서 위데희부인의 부름을 받고 석가모니불이 나타나는 장면과 왕궁에서 석가모니불의 설법을 듣는 위제희왕비가 간략히 표현되어 있다. 화면의 왼편에 극락정토를 표현한 2관에서 7관까지, 오른편에 아미타삼존의 몸을 표현한 8관에서 13관까지, 중앙에 14, 15, 16관에 해당하는 구품왕생장면이 묘사되어 있다. 長香寺본 역시 이러한 구성이며, 두 작품의 전체적인 구성은 서복사본과 거의 일치한다.



도 4 <觀經十六觀變相圖>, 鎌倉 13세기, 絹本彩色, 128.5×61.5cm, 일본 奈良 阿彌陀寺 소장



도면 2 도 4의 도면(각 觀의 명칭은 도면 1의 명칭 참고)



도4-1 阿彌陀寺〈觀經十六觀變相圖〉의 中品往生者

아미타사본은 헤이안 末期의 승려인 俊乘坊 重源(초견, 1121~1206)이 송에 유학하면서 청래해온 16관변상도를 범본으로 제작된 것으로 추정되는 작품이다.⁶ 重源은 1168년 4월부터 9월까지 3차례 四明(현재 절강성 영파)을 통해 입송하여 송판일체경과 16나한도, 아미타불도, 16관변상도 등을 청래해왔다.⁷

서복사본은 아미타사본과 유사한 구성과 도상을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서복사

본 역시 명주(사명) 인근 지역에서 조성되었던 관경변상도와 밀접한 관련이 있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실제로 고려와 일본은 절강성 명주지역을 통해 송과 활발한 교류를 하였다. 당시 절강성 명주는 송대 해상교류의 공식적인 항구였다. 일본 平安~鎌倉시기에는 많은 일본 승려들이 송에 유학하여 송의 선진적인 불교문화를 적극 수용하였다. 이 과정에서 절강성 지역의 불교유물을 청래해왔는데, '관경변상도'도 그 가운데 하나이다. 고려에도 송대 절강성 명주지역의 불화가 수입되었다는 것은 고려후기의 〈영산회상변상도〉와 〈아미타내영도〉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 삼성미술관 Leeum 소장인 1286년 〈소자본영산회상변상도〉(도5) 비롯한 몇몇 작품은 명주지역에서 판각된 〈영산회상변상도〉와 거의 유사하다. 또한 당시 중국 명주에서 제작되었고 현재 일본 奈良 圓照



도5 〈小字本法華經變相圖〉卷6의 靈山會相圖, 高麗 1286년, 木版인쇄, 21.0×45.6cm, 삼성미술관 Leeum 소장

6 重源의 3차례 걸친 입송과 행적에 관해서 「特別展『聖地寧波』關係年表, 『聖地寧波』(奈良國立博物館, 2009), pp. 238-239 참고; 岩田 茂樹, 「重源の生涯とその事蹟-佛像を中心に」, 『大勸進 重源』(奈良國立博物館, 2006), pp. 10-11.

7 관경16관변상도를 수입하였다는 사실은 重源의 『雀扇集』에 “十六觀想一鋪”을 청래했다는 기록에 의해 확인된다(增記隆介, 「南都眉間寺舊藏羅漢圖試論」, 『大和文華』 106(2001), p. 15).

사에 소장된 〈서분변상도〉⁸ 상단에 표현된 아미타삼존도의 모습은(도 6) 고려후기의 아미타삼존내영도와 매우 유사하다(도 7). 이처럼 고려 후기 불화 중 일부는 중국 절강성 명주지역의 불화와 강한 친연성을 지니기 때문에, 서복사 〈16관변상도〉 역시 당시 이 지역에서 조성된 〈16관변상도〉가 원류일 가능성이 크다.

서복사와 아미타사 〈16관변상도〉의 전체적인 구성은 유사하지만, 세부적인 면에서 다소 차이를 보인다.⁹ 먼저 서복사와 아미타사본에서 상품왕생자의 배치가 다르다. 서복사본에서 상품의 왕생자는 화면의 상단에, 아미타사본에서는 화면에 하단에 위치하는데(도면 1,2 참고), 이는 두 작품에서 14, 15, 16관의 배치가 다르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두 작품의 가장 큰 차이점은 구품왕생장면의 묘사한 14, 15, 16관에서 왕생자의 표현이 다르다는 점이다. 고려 서복사본에는 증품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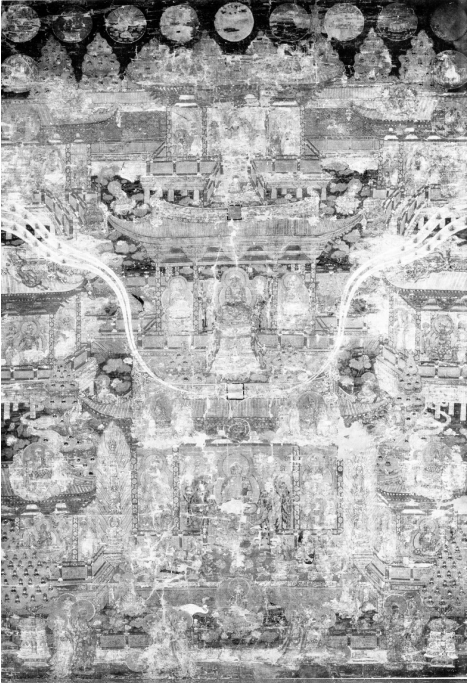
도 6 <觀經序分變相圖>의 阿彌陀現出 장면, 南宋 ~元(13~14세기), 絹本彩色, 112.9×59.7cm, 일본 奈良 圓照寺 소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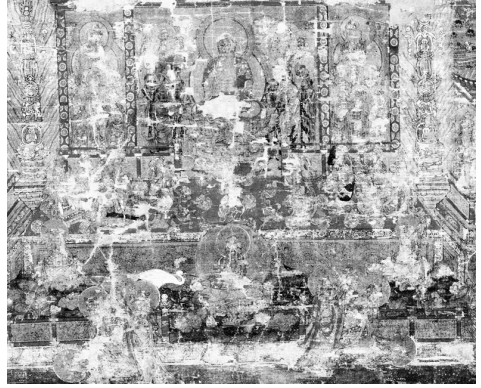
도 7 <阿彌陀三尊圖>, 高麗 14세기, 絹本彩色, 103.0×68.0cm, 일본 京都 知恩寺 소장

⁸ 圓照寺 소장 <觀經序分變相圖>가 四明(명주)에서 제작되었다는 사실은 화면 우측 중앙에 쓰여진 “四明趙寧華筆”을 통해 알 수 있다.

⁹ 아미타본에는 日觀 옆에 석가모니불이 위태희부인의 부름을 받고 기사굴산에서 내려와 왕궁에서 설법을 하는 『觀經』서분 장면이 간략히 묘사되어 있다. 반면 서복사본에서는 이러한 도상이 없다. 『觀經』서분의 일부 내용이 아미타사 〈16관변상도〉에만 묘사되어 있는 것은 분명 서복사본과 다른 구성적인 요소이다. 하지만 이 도상은 앞으로 전개할 서복사 〈16관변상도〉의 천태신앙적 요소와는 관련이 없는 것으로 생각되어 본 논문에서는 자세히 다루지 않겠다.



도8 <觀經十六觀變相圖>, 高麗 13세기 후반, 絹本彩色, 183,0×121,0cm, 일본 高萩市 大高寺 소장



도8-1 <觀經十六觀變相圖>의 下品往生者

생자를 보살과 승려의 모습으로 표현하였고, 하품 왕생자의 일부는 승려로 표현하였다(도 1-5). 보살의 모습으로 표현된 왕생자의 모습은 고려 13세기 후반의 작품으로 추정되는 일본 高萩市 大高寺 소장 16관변상도에서도 확인된다(도8). 大高寺 작품에는 상품은 물론 중

품, 하품의 왕생자까지 두광이 있는 보살의 모습으로 표현하였다(도8-1). 이에 반해 아미타사본에는 14, 15, 16관의 왕생자의 형상이 각각 14관을 보살, 15관을 승려(도4-1), 16관을 화생하고 있는 속인의 모습으로 다르게 표현되었다. 실제로 각각의 구품 장면 앞에는 ‘菩薩衆’, ‘聲聞衆’, ‘人民衆’이라는 명문이 기록되어 있는데, 이러한 왕생자 분류는 남송대 승려인 靈芝元照(1048~1116)의 『觀無量壽佛經義疏』에 근거한다.¹⁰ 원조는 남송대의 율종승이자 독실한 정토신앙자로서, 『觀無量壽佛經義疏』를 저술하는 등 16관수행에 대한 관심이 지대하였고, 정토신앙을 민간사회에 저변화시키는데 큰 공헌을 하였던 승려이다.

원조의 왕생자 분류법은 당대 승려 선도의 정토사상에 원류를 두고 있다. 선도는 그의 저서인 『觀無量壽佛經疏』에서 구품의 種性에 따라 14관의 상품삼생을 대승의 범부, 15관의 중품삼생을 소승의 범부, 16관의 하품삼생을 악을 만나는 범부라 판단하여 전부 범부왕생 한다고 밝혔

¹⁰ 元照, 『觀無量壽佛經義疏』, T. 37, No. 1754, p. 299c. “今明上三品即彼菩薩眾也 中三品即彼聲聞眾也 下三品即彼人民眾也”. 元照의 사상은 阿彌陀寺本과 같은 모본으로 조성한 長香寺本에서도 보이는데, 이러한 이유 때문에 山川曉는 觀經變相圖가 11세기 후반에 元照의 주변에서 성립한 것으로 보았다(山川曉, 「長香寺本觀無量壽經十六觀變相圖について—宋代淨土教繪畫の受容と展開—」, 『美術史』(1997), pp. 139-155).

다.¹¹ 원조는 선도의 왕생자의 분류방식을 계승하여 아미타정토에 왕생하면 삼배와 구품의 높고 낮음에 따라 ‘菩薩衆’, ‘聲聞衆’, ‘人民衆’으로 나뉜다고 보았다. 원조의 이러한 사상은 아미타본에 여실히 반영되어 있어, 헤이안 말기 일본에 전래된 송대의 관경변상도에는 원조의 사상적인 영향이 강하게 보인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고려 후기 <16 관변상도>에서는 이러한 원조의 구품왕생 사상의 영향을 받은 도상을 나타나지 않는다. 특히 서복사본에는 아미타사본에 없는 설법회, 수기장면이 등장하는데, 이러한 차이점은 각각의 작품이 궁극적으로 서로 다른 정토 사상과 신앙을 배경으로 제작되었기 때문이다.

2. 송 관경변상도의 제작과 정토신앙 배경

송대에 정토신앙은 종파와 관계없이 신앙되었고, 승려와 귀족, 일반민들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계층에서 신앙결사활동이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등 사회 전반에 뿌리를 내렸다. 송대 관경변상도의 제작 상황과 정토신앙적 배경에 관해서는 남송 천태승려 宗曉(1151~1214)가 쓴 『樂邦文類』를 통해서 명확하게 알 수 있다. 『樂邦文類』는 宗曉가 1200년에 정토에 관련된 제 경론의 중요한 글 220 편을 모아 편찬한 정토서이다. 천태승려가 편찬하였기 때문에 천태의 관점에 의해 엄선된 정토 관련 글들이 수록되어 있는 것이 특징적이다. 염불과 아미타불의 타력적인 힘에 극락왕생을 주장하는 정토종계열의 정토관의 비중은 적고 천태의 정토관이나 『華嚴經』40卷『普賢行願品』에 기반을 둔 정토신앙에 관한 내용이 주를 이룬다.¹²

먼저, 『樂邦文類』卷第2에 수록된 원조의 글 『觀經九品圖後序』에는 당시 일반대중을 위해 관경변상도가 제작되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十六觀經 觀無量壽經을 보지 아니함이라. 九品の 生相을 알지 못하고 아미타부처님의

11 善導, 『觀無量壽佛經疏』卷4, T. 37, No. 1753, “……上品上生位中……此即修學大乘上善凡夫人也……上品中生者已下……即是大乘次善凡夫人也……從上品下生者已下……即是大乘下善凡夫人也……從中品上生者……即是小乘根性上善凡夫人也……從中品中生者……即是小乘下善凡夫人也……從中品下生已下……即是世善上福凡夫人也……從下品上生者……即是造十惡輕罪凡夫人也……從下品中生者……即是破戒次罪凡夫人也……從下品下生者……即是具造五逆等重罪凡夫人也”.

12 북송대의 고위 귀족이었던 王古나 楊傑과 같은 귀족들의 정토관련저술도 일부 포함되어 있어 당시 불가와 송 귀족계층의 정토신앙경향이 상당히 반영되어 있다. 王古는 벼슬이 禮部侍郎에 이르렀던 사람으로, 淨土法門을 깨달아 『直指淨土決疑集』 3卷을 짓고 염불과 西方淨觀으로 불사를 삼았다고 한다(雲棲株宏, 『往生集』 第2卷, 「王敏仲侍郎」). 왕고의 저서는 고려에도 전래되어 의천의 『新編諸宗教藏總錄』에도 실려 있다. 본 논문의 Ⅲ-3의 (표1) 참고) 無爲子 楊傑은 벼슬이 尙書主客郎에 이르렀던 사람으로 의천이 송으로 유학했을 때 안내를 맡았던 관리이다. 그는 『天台十疑論』, 『彌陀寶閣記』, 『安養三十贊』, 『淨土決疑集序』 등을 지어 널리 극락정토를 알리고 미래 증생을 깨우쳤던 인물이다(雲棲株宏, 『往生集』 第2卷, 「楊無爲提刑」).

원력을 믿지 아니함이라. 그리하여 所見을 견지함이니 스스로 도탄을 달게 받음이라……장차 도속이 아직 經本을 열람하지 못함을 두려워하여 장인에게 명하여 九品の 相을 그리게 함이라……이에 경문을 수순한 연후에는 여러 가지 계송으로써 이를 격려함이라……이에 相을 因하여 눈여겨보아 움직임과 같음이니 글로 인하여 생각을 움직임이니 이는 반듯이 믿는 것, 理解하는 것, 수행하는 것, 往生하는 것이 이에 있음이니, 까닭에 두루 미치어 의심하는 것, 비방하는 것이 모두 다 왕생의 因種을 성취하지 아니함이 없음이라…….”¹³

이 글에서 남송대 율종승인 원조는 일반 대중이 『관경』을 이해하고 수행하여 왕생을 성취하기를 바래 십육관도를 제작하고 계송을 지었다고 밝히고 있다.¹⁴ 또한 눈을 움직여 보는 것이 『관경』을 읽는 것과 같다고 밝혀 16관변상도가 관상수행을 위해 제작되었음을 짐작할 수 있다.

이외에도 『樂邦文類』卷第2에는 천태승려들이 16관수행을 매우 중시했음을 언급하며 16관상수행이 극락왕생을 위해 반드시 행해야 할 의식임을 밝히고 있다.

“……極樂國土에 往生하고자함에는 반듯이 十六妙觀을 修行해야 함이니 미타세존을 뵈옵기를 발원하여 세 종류의 淨業을 行하기를 요구함이니…….”¹⁵

이는天台智顛(538~597)가 저술한 관경해석서인 『觀無量壽經疏』의 서문 중 일부로 『樂邦文類』에 재인용된 것이다. 또한 『樂邦文類』卷第3에는 16묘관 수행이 천태정토신앙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에게 매우 중요한 의례였음을 밝히고 있다.

“……연경사의 서쪽 귀퉁이에 공간이 있어 이천여만냥을 얻어 60여칸의 보각을 짓고 장육의 미타상과 관음과 세지보살을 세웠다. 보각은 16개의 방으로 둘러싸여 있는데 방은 각각 2칸이며, 외월에 삼성의 상을 봉안하고 내진에는 선관의 장소로 하였다. 전각은 연못에 면해 있으며 물에서 는 연화가 자란다…….”¹⁶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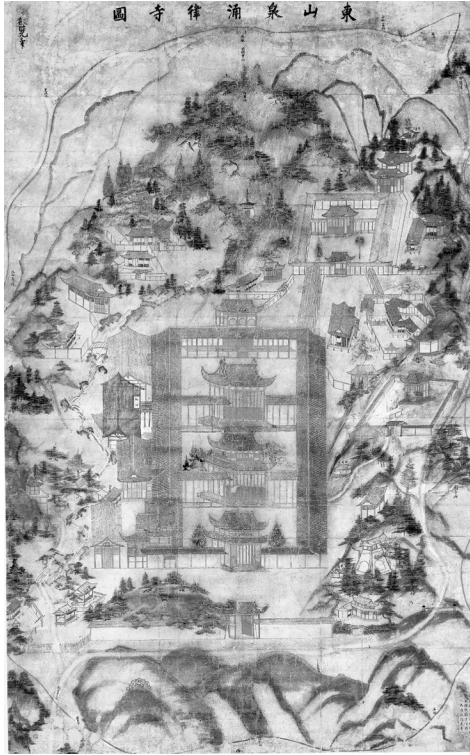
¹³ 元照, 『樂邦文類』卷第2, T. 47, No. 1969A, 『觀經九品圖後序』, “……斯由不見十六觀經 不知九品生相 不信彌陀願力而堅持所見 自甘塗炭……將恐道俗未闕經本 乃命工圖繪九品之相……隨於經後 各以偈頌爲之激勵……若乃因相以舉目 因文而動懷 是必有信者解者修者生者焉 以至疑者誘者 莫不皆爲往生因種……”.

¹⁴ 송대의 승려 중 대지律師 元照, 慈雲藏主 遵式, 檀庵 有嚴이 16관偈頌을 남기고 있다(四明石芝, 『樂邦文類』卷第5). 16관 계송은 고려의 서복사, 지은원, 름송사 소장 <16관변상도>에도 쓰여 있으며, 이들 계송은 계송을 지은 승려들의 『관경』해석에 근거하기 때문에 조성 당시의 정토신앙과 사상을 이해하는데 매우 중요한 자료이다.

¹⁵ 天台智者大師, 『樂邦文類』卷第2, 『觀無量壽佛經疏序』, “……欲生極樂國土 必修十六妙觀 願見彌陀世尊 要行三種淨業 然化因事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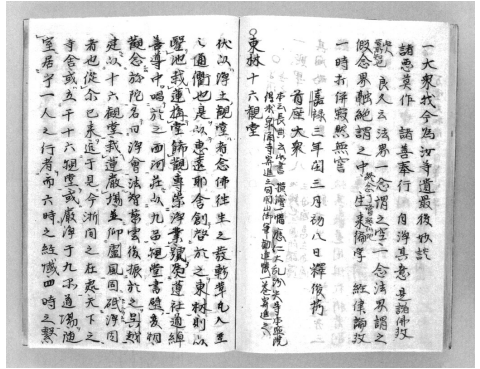
¹⁶ 延平陳旻, 『樂邦文類』卷第3, 『延慶寺淨土院記』, “……今延慶西隅尙有隙地 若得錢二千餘萬 構屋六十餘間 中建寶閣 立丈六彌陀之身 夾以觀音勢至 環爲十有六室 室各兩間 外列三聖之像 內爲禪觀之所 殿臨池水 水生蓮華……”.

여기서 16관당은 16관을 각각의 공간에서 관상수행할 수 있도록 만든 전각을 말한다.¹⁷ 연경사의 16관당은 1099년(元符二年)에 介然이 지역사회의 후원을 받아 건립되었다. 介然은 연경사에 주석하며 서방정토수행을 했던 승려로 四明知禮(960~1028)의 법손이다.¹⁸ 四明知禮는 천태지의



도 9 〈東山泉涌寺圖〉, 일본 鎌倉 14세기, 絹本彩色, 209.0×133.5cm, 일본 京都 泉涌寺 소장

의 사상을 정통으로 계승하였으며, 화엄사상에 영향을 받은 산외파와의 논쟁에서 승리한 후 북송대 천태종단을 이끌었던 산가파의 대표적인 승려이다.¹⁹ 그는 연경사를 세워 후학을 양성하였고,²⁰ 16묘관수행을 증시하여 천태지의의 『觀無量壽經疏』를 해석한 『觀融深解』(1014년), 『觀無量壽經疏妙宗抄』(1021년)를 지어 16관수행의 이론과 실천적인 측면을 결합



도 9-1 〈清衆規式并十六觀堂記〉, 江戸時代, 紙本墨書, 24.9×16.9cm, 일본 京都 泉涌寺 소장

¹⁷ 16관당은 각관을 수행할 수 있는 공간을 따로 만들었던 것으로 추정되는데, ‘언뜻 주변을 16觀寮로 둘러싸고 있다’라는 『樂邦文類』卷第3의 또 다른 글에서 확인된다. “草菴錄曰 陳瑩中作淨土院記……一日必矚於目 乃依十六觀經 而出視之 爲彌陀大像 以臨池 周之以十六觀察……”. 16관의 한 관에 해당하는 수행공간을 따로 만들었다는 사실은 자운준식이 건립한 日觀庵을 통해서도 확인 가능하다. 慈雲鐵主遵式, 『樂邦文類』卷第5, 「日觀銘(并序)」, “天禧四年 太歲庚申 春二月癸未朔 十有三日 乙未 耆闍飛來 峰之南 古天竺寺末門(遵式)於寺東嶺 香林洞側 造日觀菴 乃題石作日觀銘(出十六觀經)”.

¹⁸ 延平陳確, 『樂邦文類』卷第3, 「延慶寺淨土院記」, “明州延慶寺住持比丘世有講席 以天台觀行為宗 自法智大師知禮 行學俱高 聽徒心嚮 繼其後者 又皆得人 今百有餘年矣 間有苦行精修之士 來依道場 元豐中比丘介然 修西方淨土之法 坐而不臥 以三年爲期……今延慶西隅尙有隙地”.

¹⁹ 그의 천태정토사상에 관해서는 김은희, 『四明知禮의 천태정토관 연구』(동국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1998) 참고.

²⁰ 사명지례는 995년부터 保恩院을 중심으로 활동하였다가 1002년 지례 53세에 延慶寺라는 절의 현관을 받았다. 『佛祖統紀』8卷, T. 49, p. 192下, “十七祖法智尊者知禮……大中祥符二年 重建保恩院成 自興役至今凡十載 通守石符問爲之記 三年乞郡奏於朝 十月 賜額延慶”.

시켰다. 연경사 16관당은 사명지례의 이러한 16관수행이론이 실제 수행에 적용되면서 건립되었던 것으로 판단된다.²¹

사명지례의 천태정토신앙은 고려와 일본의 정토신앙에 상당한 영향을 미쳤다. 일본에서는 11세기 전반 경에 사명지례과 일본승려 源信 등이 직접 서신왕래를 하면서 사명의 정토사상이 일본에 전래되었으며,²² 13세기 초에는 일본의天台律僧이었던 可棄法師 俊苒(1166~1227)이 남송대浙江省 영파의 延慶寺 16觀堂 가람배치를 그대로 옮겨 교토에 泉涌寺를 건립하기도 하였다. 현재 교토의 泉涌寺에는 16관당이 현전하지는 않지만, 당시 송대 16관당을 그대로 옮겨 건립되었다는 기록과 그림이 있어 참고가 된다(도 9, 9-1).²³

고려에서는 16관당이 건립되었다는 기록은 없지만, 서복사 <16관변상도>를 비롯해 관경변상도의 제작이 이루어졌던 것으로 미루어 16묘관의 수행이 고려사회에서 행해졌다는 것을 쉽게 추정할 수 있다.

3. 송 천태정토신앙의 고려 유입과 전개

정토신앙이 5세기 말 전래된 이후 통일신라시대에는 각종 만일염불회 등 염불수행을 통한 아미타신앙이 성행하였다. 고려전기에는 염불수행을 위한 아미타왕생신앙 뿐 아니라 의상, 원효 이래의 화엄과 결합된 화엄정토신앙이 공존하였다. 그러나 고려후기 정토신앙의 흐름에 큰 영향을 미친 것은 천태사상과 결합된 천태정토신앙이었다. 천태정토신앙이 고려에 전래된 데에는 大覺國師 義天(1055~1101)의 역할이 크다. 의천은 고려 천태종의 개창에 앞서 송에 유학을 갔을 때 천태 산가파의 거두인 사명지례의 법맥을 이은 천태사상을 전수받았다.²⁴ 사명지례 및 천태승려들의 정토관련 저서가 고려로 수입되어 영향을 미쳤다는 사실은 의천이 만든 경전 장소류의 목록 집인 『新編諸宗教藏總錄』(이하 『總錄』)에서 볼 수 있다(표 1).²⁵

『總錄』에 기록된 정토 서적류의 가장 큰 특징은 천태종 계열의 정토의식문과 정토경전의 해

²¹ 강남지역에서 천태사상에 기반을 둔 16관수행이 정토왕생을 위한 수행의식으로 정착되면서 宋 孝宗代(1127~1194) 향주 上天竺寺에도 16관당이 건립되었다(林 鳴宇, 『宋代天台教學の研究』(山喜房佛書林, 2003), p. 699 참고).

²² 995년 일본 승려 寂照가 본국의 천태승인 惠心僧都 源信(942~1017)의 질문 27조목을 가지고 찾아왔을 때 이에 대해 하나하나 답변을 썼던 기록이 전한다(『聖地寧波』, 奈良國立博物館, 2009, p. 239의 特別展) 『聖地寧波』關係年表 참고).

²³ 田中久夫, 『鎌倉佛教』 歴史新書 58(春秋社, 1980), pp. 69-71.

²⁴ 의천은 四明知禮의 법맥을 이은 慈辯從諫에게서 천태법을 전수받고 전법의 신포로 手爐와 如意를 받았다. 『佛祖統紀』 卷14, 義天條, pp. 223c11-16, “及見天竺慈辯 請問天台教觀之道……奉慈辯所傳教文 立其像爲初祖”; 『大覺國師文集』 卷10, “……請遣師還國 遂詔到闕辭還師欲登道慈辯大師從諫著詩一首 贈手爐如意師在本國……”.

²⁵ 義天, 『新編諸宗教藏總錄』 卷3, 『韓國佛教全書』 4, pp. 687-697; 金聖洙, 『新編諸宗教藏總錄』의 著錄에 관한 研究, 『도서관학논집』26(1997), pp. 1-20.

표 1 『新編諸宗教藏總錄』에 실린 중국 승려의 淨土經典 章疏류

정토경전의 章疏류	종파
智顓, 『觀無量壽佛經疏』 1卷, 『(淨土)十義論』 1卷, 『阿彌陀經義記』 1卷	천태종
智圓, 『觀無量壽佛經刊正記』 2卷, 科1卷, 『阿彌陀經疏』 1卷, 『阿彌陀經賈資鈔』 1卷, 科1卷	
知禮, 『觀無量壽佛經疏妙宗鈔』 3卷, 科1卷	
遵式, 『往生淨土決疑行願二法門』 1卷, 『往生淨土懺願儀』 1卷	
仁岳, 飛錫, 繼忠, 戒珠(지례의 법손), 『往生淨土傳』 3卷	율종
元照, 『十義論科』 1卷, 『求生淨土禮懺行法』 1卷, 省躬, 智首	법상종
窺基, 『阿彌陀經通贊疏』 2卷, 『阿彌陀經疏』 1卷	기타
龍興, 靈鑑, 元傳, 智昭, 元舍, 王古 등	

표 2 山家와 四明知禮에 관해 언급한 기사

	기사	출전
1	“求師受業始學寶雲……秉筆造論毗贊聖教……長年結一萬人念彌陀佛求生淨土……三年結一十人 修法華懺 然身供養……”	天頊, 『湖山錄』 卷3
2	“一入天台慕湛然……日用唯攻安上蓮……鑽仰山家節要篇”.	天頊, 『湖山錄』 卷3, 『答林正言桂一』
3	“要期修懺依知禮……”.	天頊, 『湖山錄』 卷3, 『次韻奉答』
4	“……皆用道拈出山家……”.	天頊, 『湖山錄』 卷3, 『次韻李居士頊詩并書』
5	“……幸今有萬德尊宿 慕四明清規……”.	天頊, 『湖山錄』 卷4, 『壬辰年普賢道場起始疏』
6	“又師屢夢智者講妙宗(『觀無量壽佛經疏妙宗鈔』)……若不發天台妙解……及講(四明知禮)妙宗……自後樂說妙宗”.	崔滋, 『東文選』 卷117, 『萬德山白蓮社圓妙國師碑銘并序』

석서, 그리고 왕생집 등이 수입되었다는 것이다. 그 중 고려후기에 가장 영향을 준 天台智顓의 『觀經疏』, 四明知禮의 『觀無量壽佛經疏妙宗鈔』(이하 『妙宗鈔』)가 주목되며, 그 외에 지원(976~1022), 준식(963~1032) 등 사명지례와 동시대에 활동했던 천태종승의 의식집이나 論疏류도 눈에 띈다.²⁶ 이외에 율종승 원조나 법상종 구기의 저술이 목록에 추가되어 있기는 하나 대체로 천태종승이 저술한 정토서들이 주를 이루고 있다.

²⁶ 『總錄』에 정토종의 도자이나 선도 등의 저술을 포함시키지 않았던 것은 의천의 정토관과 아미타정토를 타방정토로만 인식했던 선도 등의 교설에 동의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생각된다. 또한 선사들의 저술도 포함되지 않는데, 마음이 깨끗해지면 정토이므로 서방정토가 따로 없다는 선사들의 주장에도 동의하지 않았기 때문일 것이다(김영미, 『大覺國師義天의 阿彌陀信仰과 淨土觀』, 『歷史學報』 第56輯(1972.12), pp. 13-27.

표 3 고려 후기 승려와 四明 延慶寺 승려들과의 교류

	기사	출전
1	“越歲在戊午年(1258년)八月上旬 山人卓然以大宋延慶寺所寄 佛舌詔 祖師讚淨土院記來示……”.	天頤, 『湖山錄』卷3.
2	“……又大宋建慶寺*傳天台教觀沙門法言 以本寺所藏佛居記 寄本朝 雲遊子卓然……”.	李益培, 『朝鮮金石總覽』上, 『佛臺寺慈眞圓悟國師碑』.
3	“中統三年壬戌(1262년)五月初六日 伏承法雲卓然禪老所傳示 大宋延慶寺諸尊宿 法華隨品讚一軸……某早參萬德山白蓮社頂謁圓妙國師 始立普賢道場……”.	天頤, 『湖山錄』卷3.
4	“昨見大宋延慶寺隨品讚……近託商船 先已寄呈諸尊宿座下 今又更成一軸者……”.	天頤, 『湖山錄』卷3, 『更和法華隨品讚并序』.

* 『佛臺寺慈眞圓悟國師碑』에서는 建慶寺로 기록되어 있으나 『湖山錄』에서는 延慶寺로 기록되어 있어 '建'은 延의 오자로 판단된다

천태정토신앙이 대중화된 시기는 의천이 입적한지 150여년 후에 圓妙了世(1163~1245)의 백련결사운동이 시작되면서부터이다. 백련결사자들은 “法華三昧 求生淨土”를 이념으로 내세워,²⁷ 法華懺法修行을 통한 정토왕생신앙을 강조하였다. 각종 기록에 천태 산가과의 지례의 행적을 찬탄하고(표 2의 1) 그와 그의 저작인 『묘중초』를 중시했던 기록이 전하는 것으로 보아(표 2의 2,3,4,5,6), 백련결사자들은 송대 천태 산가과 승려들의 정토사상과 신앙을 적극 받아들였던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사실은 지례가 주석했던 사명 연경사의 승려들과 교류했던 사실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표 3).

백련결사자들이 송대의 새로운 천태서적을 접했던 시기는 1250~60년대로 추정된다. 백련결사자들과 연경사와의 교류는 간접적으로 이루어졌는데, 조계종승 卓然의 도움이 컸다.²⁸ 탁연은 연경사승 법언을 만나고, 法華壽品讚을 비롯한 각종 천태관련 서적을 접했는데, 그 중에는 『延慶寺淨土院記』도 포함된다(표 3의 1). 또한 종효가 사명의 행적을 기록한 『四明尊者教行錄』(1202년)도 전래되었던 것으로 추정되는데, 이는 사명지례의 행적을 찬탄한 『호산록』의 기록을 통해 확인된다(표 2의 1). 宗曉의 저술서 가운데 앞서 주목해서 보았던 『樂邦文類』(1200년)는 현전하지 않지만 고려후기에 유통되었던 중요한 정토서이다. 이러한 사실은 최우의 사위인 鄭晏(?~1251)이 1236년부터 46년까지 寺刊版으로 간행한 불서의 발원문에 『樂邦文類』가 인용되어 있다는 사실

²⁷ 崔滋, 『東文選』 卷17, 『萬德山白蓮社圓妙國師碑銘 并序』, “……以壬辰夏四月八日 始結普賢道場 修法華三昧 求生淨土……”.

²⁸ 탁연의 호는 法雲·法游子이다. 고종 때 曹溪山에서 승려가 되었다. 명필로 이름을 떨쳤고 상주목사 崔滋가 白蓮社를 중창할 때 白蓮寺의 額書를 썼다. 최자가 지은 『보한집』에 그의 일화가 간략히 전한다.

로 알 수 있다.²⁹

천태지의·사명지례의 관경해석서와 『樂邦文類』와 같은 천태사상에 기반을 둔 송대의 정토서가 13세기 중엽 본격적으로 유통되면서 고려 후기 사경이나 불화조성에 많은 영향을 미쳤다고 판단된다.³⁰ 그 영향은 고려 후기 『법화경』사경이 고려전기보다 늘었다는 사실에서 알 수 있다. 천태에서는 『법화경』을 정토왕생에 가장 수승한 경전으로 여겼으며, 寫經과 讀誦을 정토왕생을 위한 중요한 실천행으로 강조하였다. 고려 후기에 정토왕생을 위한 중요한 행의로서 『법화경』의 독송과 사경이 자리잡고 있다는 사실은 각종 기록과 사경의 발원문 등에서 살펴볼 수 있다. 정토수행 혹은 임종행의를 목적으로 한 아미타내영도 제작이 성행했던 것도 천태정토서와 함께 왕생담이 널리 유통되었던 사실과 관련이 있다.³¹ 특히 <16관변상도>의 제작에 미친 영향은 『관경』에 설하지 않은 설법회 장면과 하단의 아미타수기장면을 통해서 드러난다.³²

IV. 정토도상의 천태신앙적 요소와 해석

1. 석가설법회와 절대세계의 지향

서복사 <16관변상도> 상단의 설법회에 관한 도상분석에는 기존에 2가지 견해가 있다. 먼저 阿彌陀佛繪圖라는 견해는 日觀 옆에 쓰인 ‘安樂世界佛會圖’라는 방제에 근거한다. 즉 ‘安樂世界佛會圖’를 ‘阿彌陀佛會圖’라고 인식한 것이다.³³ 그러나 아미타설법회라는 해석으로는 상단에 자리한 육방불과 10대제자와 16나한의 도상에 관해서 설명할 수 없다.

두 번째 석가불회도라는 견해는 『관경』을 비롯한 정토삼부경이 모두 석가불의 설법으로

²⁹ 鄭晏은 남해의 개인 원찰에서 1236년부터 1246년까지 『妙法蓮華經』, 『大方廣佛華嚴經普賢行願品』, 『金剛般若波羅密經』, 『佛說預修十往生七經』 4종, 『金剛三昧經論』과 『禪門拈頌』 2종을 간행하였다(鄭炳三, 「고려 후기 鄭晏의 불서 간행과 불교신앙」, 『불교학연구』24(2009), pp. 403-436).

³⁰ 고려 16관변상도의 성립과 발전이 북송 이래의 중국 천태정토교의 관상해석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사실은 일본 학자들에 의해 이미 언급되었다(井手誠之輔, 앞의 논문, pp. 19-37); 大原嘉豐, 앞의 논문, pp. 40-41). 그러나 송대 천태 정토신앙이 고려에 전래되게 된 상황이나 성행했던 배경, 그리고 송대의 천태정토서적이 작품조성에 구체적으로 미친 영향, 또한 다음 장에서 분석하게 될 석가설법도와 아미타수기도상의 의미파악은 시도되지 않았다.

³¹ 이승희, 앞의 논문, pp. 145-151.

³² 이승희, 앞의 논문, pp. 31-39.

³³ 아미타설법도라고 주장하는 설은 다음과 같다. 洪潤植, 『高麗佛畫의 研究』(同和出版社, 1984), pp. 87-93.

이루어졌다는 점에 근거한다.³⁴ 본 연구자는 이 견해가 6방불을 해석할 수 있어 좀더 타당하다고 생각한다. 6방불은 염불왕생을 증명하는 6세계를 대표하는 부처로서 『阿彌陀經』에 기록되어 설법회의 주부처가 석가모니불인 확실한 근거가 된다.³⁵ 또한 이제까지 주목하지 않았던 ‘安樂世界佛會圖’라는 명문 옆 계송에서도 아미타정토세계를 노래하지 않고 있다. “피안의 정토세계를 관상하여 아미타불을 깨닫고, 삼계를 초월하여 법왕(석가모니불)에게로 참된 왕생하니(觀彼世界相 正覺阿彌陀 勝過三界道 法王善往生)”라는 계송은(도 1-3) 이 설법회가 ‘安樂世界佛會圖’가 아닌 ‘안락세계에 관해 설법한 釋迦牟尼佛의 佛會圖’를 표현한 것임을 명확히 밝히고 있다.

위의 계송은 도상분석에서 뿐만 아니라 서복사 <6관변상도>에 적용된 정토인식을 해석하는데 중요한 자료이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아미타정토로의 왕생 이후에는 큰 의미를 부여하지 않는다. 그러나 이 계송에서는 아미타정토가 왕생의 목표이자 도달처가 아니고, 석가모니불에게 도달할 때 비로소 참된 왕생이 이루어진다고 말하고 있다. 이는 아미타정토의 관상수행을 통해 아미타불을 깨닫긴 하지만 진정으로 추구하는 것이 삼계를 초월한 석가불의 세계라는 것이다. 즉 아미타정토는 궁극적인 왕생처가 아닌 과정일 뿐임을 밝힌 것이다. 이와 같은 인식은 송대의 待制陳瓘이 쓰고 『樂邦文類』卷第2에 수록된 『淨土十疑論後序』에서 잘 드러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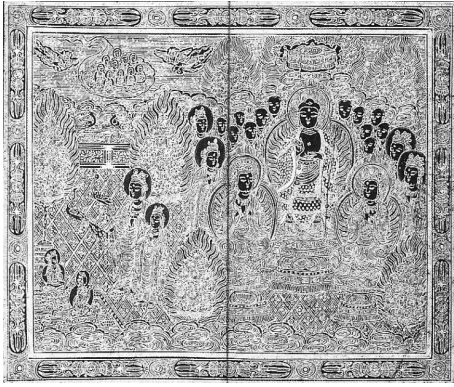
“……석가여래부처님께서 大慈의 연민함을 발기하여 이에 저 예토의 五濁惡世 가운데서 큰 음성을 발하시어 서방정토극락세계 안양국의 上妙한 즐거움을 찬탄하매, 이에 사바세계 가운데서 大船의 스승이 되시어 法船으로써 염불하는 중생을 실어서 西方淨土極樂世界로 운반함이라. 하여금 彼岸(常寂光土)으로 달려나아가임이라……석가모니부처님께서 방편으로 유독 서쪽을 경계로 삼아 지목하니 이러한 까닭으로 이미 彼岸에 도달한 자는 이에 가히 彼此(아미타정토)를 잊고…….”³⁶

이 글은 천태지의의 『淨土十義論』를 재인용하여 쓴 글로서 천태의 정토왕생관이 명확히 드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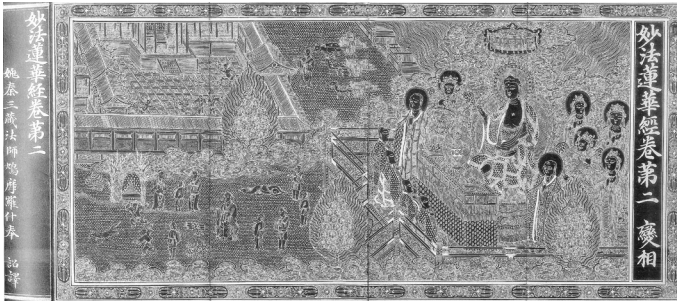
³⁴ 석가설법도를 주장하는 사람들은 文明大, 河原由雄, 이동주가 있다. 참고논저는 文明大, 앞의 논문, pp. 3-25. 河原由雄, 앞의 논문, pp. 47-52; 李東洲, 「西福寺를 찾아서」, 『韓國繪畫史論』(悅話堂, 1987), pp. 257-265; 유마리는 도상적으로 석가불의 집회장면과 유사하다고만 지적하였다(柳麻理, 「中國 敦煌莫高窟(17窟) 發見의 觀經變相圖(빠리 기메東洋博物館藏)와 韓國 觀經變相圖(日本 西福寺藏)의 비교고찰」, 앞의 책, pp. 56-57); 이외에 송은석은 아미타설법도와 석가설법도의 도상적 성격을 모두 지니고 있는 것으로 보았다. 송은석, 앞의 논문, pp. 16-18.

³⁵ 『佛說阿彌陀經』, T.12, No. 366, pp. 347b15-348a6, “……故說此言 若有眾生聞是說者 應當發願生彼國土 舍利弗 如我今者 讚歎阿彌陀佛不可思議功德 東方亦有阿閼鞞佛……南方世界有日月燈佛……西方世界有無量壽佛……北方世界有焰肩佛……下方世界有師子佛……上方世界有梵音佛……”.

³⁶ 待制陳瓘, 『樂邦文類』卷第2, 『淨土十疑論後序』, “……釋迦如來 起大慈憫 於穢濁中 發大音聲 讚彼淨土上妙之樂 於生死中 爲大船師 載以法船 令越彼岸……而釋迦方便獨指西鏡 故已到彼岸者 乃可以忘彼此”.



도10 <阿彌陀經變相圖>, 高麗 1341년, 22.0×8.7cm, 紺紙金泥, 영국 런던 대영박물관 소장



도11 <法華經變相圖>卷2, 高麗 1340년, 20.2×43.6cm, 日本 佐賀 鍋島報效會 소장

러나 있다. 즉 석가모니불의 말씀으로 서방 아미타정토로 갈 수 있도록 하지만, 그곳은 방편의 땅일 뿐 궁극적으로 도달하고자 하는 곳은 석가모니불의 세계임을 힘주어 말하고 있다. 천태지의는 정토를 常寂光土, 方便有余土, 實報無障礙土, 凡聖同居土 4단계로 구분하였다.³⁷ 이 중 상적광토는 가장 이상적인 불국토로, 천태의一心三觀의 수행을 거쳐 도달할 수 있는 절대 진리의 세계이자 법신 석가모니불이 머무는 정토이다. 이에 비해 가장 아래 위치한 범성동거토는

아미타여래가 응신으로 화현한 곳이자 미혹함을 끊어버리지 못한 사람이 가는 곳이다. 다시 말해 범성동거토는 방편의 땅인 것이다. 이러한 천태정토관은 제7화좌관 밑에 표현된 표정이 밝지 못한 인물들을 통해서도 살펴

볼 수 있다(도1-4). 이들은 네 가지 의혹에 빠진 사람들이나 정토의 주변이라 할지라도 정토에 태어난 사람들이다(四疑凡夫邊地處). 이들은 비록 방편의 땅인 아미타정토에 태어났지만 오랫동안의 수행을 통해 궁극적으로 석가모니불에게 참된 왕생을 할 수 있는 사람들임을 표현한 것이다.

결론적으로 서복사본에 표현된 석가설법회는 석가의 설법을 듣고 아미타정토로 왕생하였지만 왕생자가 궁극적으로 도달하고자 하는 석가모니불의 절대세계인 상적광토를 표현한 이중적인 의미를 갖는다. 16관 수행을 통해 상적광토를 추구하였다는 사실은 사명지례의 저술서인 『묘종초』에 서술된 『“관경”16관의 궁극적인 목적은 서방극락정토로의 왕생이 아니라 상적광토에 그 목적이 있다』는 글을 통해서도 확인된다.³⁸

정토왕생의 궁극적인 왕생처로서 석가불세계를 지향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또 다른 예가 영

³⁷ 天台智顛, 『維摩經略疏』, T. 38, No. 1778.

³⁸ 四明知禮, 『觀無量壽佛經疏妙宗鈔』, T. 37, No. 1751, “……實相既是常寂光土若謂十六只觀應佛依正之相豈能顯此實相寂光若於十六用圓三觀尚能感得寂光極樂……”.

국 대영박물관 소장의 고려 1341년명 〈阿彌陀經變相圖〉이다(도 10). 화면 좌측의 부처설법장면에는 12명의 비구와 4위의 보살, 그리고 구름을 탄 타방불이 표현되어 있어 설법주가 석가불임을 알 수 있다. 그리고 화면의 우측에는 2위의 보살이 내영하여 연꽃 위에 앉아 있다. 전체적인 구도는 왕생자가 석가불세계에 도달하였음을 보여준다. 일반적으로 〈아미타경변상도〉에는 아미타삼존불이 묘사되는데 반해, 대영박물관 〈阿彌陀經變相圖〉에는 석가설법도가 표현되어 있어 천태의 정토관에 대한 인식을 드러내고 있다. 이러한 인식은 함께 조성되었을 것으로 추정되는 『법화경』 사경을 통해서 더욱 분명해진다. 대영박물관 소장 『아미타경』과 일본 佐賀 鍋島報效會 소장 『법화경』은 비록 다른 해에 조성되었지만(도 11), 柏巖聽古가 두 경전 모두 사서하였고, 두 사경변상도의 양식도 같아 한 세트의 구성되었던 것으로 추정된다.³⁹ 이처럼 『법화경』과 『아미타경』을 함께 사서하고, 〈아미타경변상도〉에 석가설법회를 표현한 것은 서복사 16관변상도와 같은 천태정토관에 근거하였다는 것을 말해준다.

2. 방편의 땅 아미타불세계와 아미타수기도상

서복사 〈16관변상도〉에는 2개의 정토세계가 표현되어 있다. 하나는 상단에 석가모니불의 절대세계인 상적광토이고, 나머지는 16관으로 표현된 방편의 땅인 아미타불세계이다. 아미타불 세계에서 절대적인 불세계인 상적광토로 나아가기 위해 갖추어야 할 조건은 무엇인지 아미타수기도상을 통해 해석해보도록 하겠다.

서복사 〈16관변상도〉의 수기장면에 관해서 다양한 의견이 있으나(도 1-2),⁴⁰ 방제에 근거해 수기도상으로 보는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된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알려진 사바세계에서 석가모니불이 내리는 成佛授記 혹은 極樂往生授記와는 다르다. 우선 수기를 내리는 장소가 아미타정토인 점, 수기를 내리는 주체가 아미타불이라는 점, 그리고 시기적으로는 왕성한 이후에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석가불의 수기와는 완전히 다르다.

아미타극락세계에서 아미타불의 내리는 수기에 관한 내용은 『화엄경』⁴⁰ 권 「보현행원품」에

³⁹ 이승희, 앞의 논문, p. 89. 佐賀 鍋島報效會 소장 『법화경』에 관해서는 권희경, 『고려의 사경』(글고운, 2006), p. 87참고.

⁴⁰ 문명대는 위태희왕비가 아미타삼존을 친견해서 수기를 받는 경의 내용을 도상화했거나 釋尊王宮湧出圖일 가능성이 있다고 보았다(문명대, 앞의 논문, p. 17). 유마리는 授記라기보다 극락에 온 왕생자를 아미타불이 맞는 阿彌陀歡迎 장면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았다(柳麻理, 『韓國觀經變相圖와 중국觀經變相圖의 比較研究』, p. 101의 주) 167). 일본의 학자 河原由雄은 신생보살과 아미타가 처음으로 대면하는 父子相迎會로 보았다(河原由雄, 앞의 논문, p. 47) 특이할 만한 의견으로 홍윤식은 西福寺 〈16관변상도〉의 摩頂授記장면에 근거하여 阿彌陀來迎圖가 授記圖임을 주장하기도 하였다(洪潤植, 『高麗佛畫에 있어 來迎圖와 授記圖』, 『素軒南都泳博士華甲記念史學論叢』(1984.5), pp. 133-153).

나온다. 「보현행원품」에 나오는 정토왕생의 내용은 보현의 10대 소원의 受持와 독송을 권하여 극락정토에 왕생하고, 아미타여래의 授記를 얻고 화엄세계를 편력하고 다시 중생을 구제하여 극락 세계로 향하게 한다는 것이다.⁴¹ 이러한 「보현행원품」에 근거한 정토왕생신앙은 『樂邦文類』에서도 여러 차례 인용되고 있지만 약간의 변형이 이루어져 成佛을 강조하고 있다.

“잠시 정토를 의지하여 미타의 해중을 친근하고 곧바로 성불함에 도달한다.……친히 아미타 부처님을 뵈옵고 현전에서 아미타부처님의 수기를 입는다.……十方에 遍滿하여 널리 두루 一切衆生界를 利益되게 함이 곧 이 뜻에 나아감이라.”⁴²

상식적으로 극락정토에 왕생한다고 해서 모든 왕생자가 성불한다는 것은 아니다. 成佛을 하기 위해서는 선행하는 조건이 있는데, 천태에서는 ‘보살행’을 그 조건으로 제시하고 있다.⁴³ 천태지의는 『법화삼매참의』에서 “임종 시에 안양에 왕생하여 아미타불을 받들어 十地의 수승한 樂을 수행하기를 발원하다”고 하였다.⁴⁴ 十地는 보살의 수행 단계로⁴⁵ 부처의 지혜를 생성하고 중생을 교화하여 이롭게 하는 단계를 말한다. 여기서도 알 수 있듯이 보살행의 가장 근간을 형성하는 것은 “중생구제”이다. 극락세계에서의 중생구제사상이 고려후기에 중시되었음은 백련결사 2대 범주인 천인이 쓴 『法華懺法禮文』에서도 확인된다. 이 글에서 “석가모니불과 『法華經』의 제불·보살에 귀의한 후 참회하면 극락세계인 아미타국에 갈 수 있고, 아미타국에서 새로운 불력을 만나 무생인을 깨닫고 널리 중생의 구제도 서원하고 있다”라고 하였다.⁴⁶ 보살행을 통한 성불사상은 천태정토관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러한 정토관은 관경변상도의 도상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 우선 서복사 <16관변상도>의 시기장면에서 왕생자를 보살의 형상으로 표현한 것이 그 예이다. 또한 大高寺 소장 <16관변상도>에서도 아미타수기장면과 함께 상품부터 하품의 왕생자를 모두 보살의 형상으로 표현한 것도 왕생자의 보살행을 강조하기 위한 것으로 이해된다

⁴¹ 고려 13·14세기에는 『화엄경』 40권 「보현행원품」에 근거한 아미타정토신앙이 크게 성행하여 아미타불화나 관경변상도의 발원문에도 자주 인용되었다. 「보현행원품」에 근거한 아미타정토신앙과 아미타내영도의 제작에 관해서는 이데 세이노스케(井手誠之輔), 『華嚴思想과 高麗佛畫의 범주』, 『高麗時代의 佛畫』(시공사, 1997), pp. 15-19 참고.

⁴² 宗曉, 『樂邦文類』卷第, “道純法師口……所以暫依淨土 親近彌陀海衆 直至成佛……親睹如來無量光 現前授我菩提記 蒙彼如來授記已……遍十方 普利一切衆生界 卽斯意也”.

⁴³ 李永子, 「법화경의 보살사상」, 『법화·천태사상연구』(동국대학교 출판부, 2007(2002년 초판)), pp. 93-109.

⁴⁴ 智顓, 『法華三昧懺儀』, T46, p. 953.

⁴⁵ 歡喜地, 離垢地, 明地, 焰地, 難勝地, 現前地, 遠行地, 不動地, 善慧地, 法雲地를 말한다.

⁴⁶ 天因, 『法華懺法禮文』, “右稽首歸命 于靈山會主 我本師釋迦如來爲首法華經中……令我所有業障 從今懺悔…… 皆悉迴向極樂世界彌陀佛國……成就大智 悟無生忍圓滿功德 神通自在 廣度衆生……”.

(도 8-1).⁴⁷

천태정토신앙의 영향은 석가설법도, 아미타수기장면과 보살형의 왕생자 표현 등을 통해 살펴볼 수 있고, 그들 도상은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고려인의 독자적인 정토사상을 바탕으로 한 왕생의 구조를 만들어내고 있다. “석가설법을 통한 극락왕생→아미타불로부터의 성불수기→보살수행→성불 혹은 상적광토로의 참된 왕생”. 서복사 <16관변상도>에서 석가설법도의 바로 아래 부분에 상품의 왕생자를 배치한 것도 상품의 왕생자가 하품의 왕생자보다는 짧은 시간 수행을 통해 성불할 수 있는 존재였기 때문일 것이다.

고려후기에 천태정토신앙은 당시 사람들의 정토신앙관을 바꾸는데 일조하였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 그들은 염불을 통한 아미타불의 타력적인 힘에 의한 정토왕생이 아닌 자력적인 자기수행과 보살행을 통한 대중구제를 통해 成佛을 이루는 것이 진정한 정토왕생의 목표였다. 관경변상도가 『관경』16관의 묘관 수행을 위한 불화로서 조성되었다는 것을 생각한다면 서복사본은 고려 후기 사람들의 정토에 대한 염원과 왕생에 대한 의지 그리고 수행자세까지 훌륭하게 발현되어 있다고 생각된다. 이러한 점은 비록 서복사 <16관변상도>가 송의 <16관변상도>에 연원을 두고 있지만 고려만의 독자적인 관경변상도 형식으로 조성되었던 중요한 요인일 것이다.

VI. 맺음말

서복사 <16관변상도>는 도상적인 면에서 송대 절강성 사명지역의 불화와 친연성이 강하며, 정토신앙적인 측면에서도 사명지역에서 성행하였던 사명지례의 천태정토신앙의 영향이 컸음을 알 수 있었다. 송초 사명지례를 위시한 산가파의 천태승들은 독실한 정토신앙자로서, 천태에 의한 16묘관수행을 중시하였고, 천태사상과 결합된 정토경전을 해석하는 등 이론과 수행의식을 결합시켰다. 이러한 변화 가운데 관경변상도는 당대와는 달리 <서분변상도>와 <16관변상도>가 따로 제작되었고, 수행용 불화로서의 기능이 강화된 <16관변상도>가 성립되었다.

사명지례의 천태정토사상 및 신앙이 고려에 전래된 시기는 11세기 후반이지만 적극적으로 수용되어 사회전반에 영향을 미치기 시작한 시기는 13세기 중엽 백련결사운동이 시작되면서부터이다. 백련결사운동이 진행되면서 천태지주의 『관경소』, 사명지례의 『묘종초』, 송대 1200년경 새롭게 저술된 『낙방문류』 등이 유통되었고, 사명지례가 주석했던 연경사 승려들과 교류하면서

⁴⁷ 井手誠之輔는 大高寺 <16관변상도>에 구품왕생자를 모두 보살의 형상으로 묘사한 것은 지례의 영향이라고 보았다(井手誠之輔, 『絹本著色 觀經十六觀變相圖 一幅』, 『茨城の文化財』(茨城縣教育委員會, 2002).

16묘관 수행을 위한 관경변상도가 널리 제작되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서복사 <16관변상도>는 고려후기 사람들이 이해했던 천태정토사상과 신앙에 기반을 두고 철저한 계산과 의도를 가지고 도상 하나하나를 배치했던 것으로 보인다. 그들이 추구했던 궁극적인 왕생의 완성은 성불 혹은 절대진리의 세계인 상적광토였다. 따라서 이에 맞추어 극락세계를 두 그룹으로 나누어 상단에 석가설법회를 나머지 부분에 아미타정토를 배치하였다. 방편의 땅인 아미타정토에서 성불로 나아가는 방법으로 보살행을 강조하였는데, 그에 맞추어 아미타수기장면에는 보살형상의 왕생자가 표현되어 있다. 결과적으로 서복사 <16관변상도>에는 '석가설법을 통한 아미타정토왕생', 그곳에서의 '대중구제를 목표로 한 보살행'과 '보살행을 통한 성불', 궁극적으로 '석가불세계로의 참된 왕생'이라는 고려후기 사람들의 정토관을 구현해내고 있다.

서복사 <16관변상도>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염불과 아미타불의 타력적인 힘에 의한 정토 왕생신앙을 담고 있지 않다. 이는 당시 고려인들의 천태에 입각한 이전과는 다른 새로운 정토인식을 보여주는 것이며, <16관변상도>에 표현된 아미타수기와 석가설법장면은 그들만의 독자적인 정토관에 의해 창출된 도상인 것으로 생각된다.

*주제어(Key Words)_16관변상도(Scriptural Illustrations of the Sixteen Anapanasati Stages), 천태정토(Pure Land of Cheontae), 사명지례(Siming Zhili), 낙방문류(Nakbangmunrhu) 상적광토(Land of Eternally Tranquil Light)

■ 투고일 2013년 5월 21일 | 심사개시일 2013년 7월 13일 | 심사완료일 2013년 9월 6일 ■

참고문헌

1. 經典 및 史料

- 善導, 『觀無量壽佛經疏』
義天, 『新編諸宗教藏總錄』, 『韓國佛教全書』4
『東文選』
『佛說阿彌陀經』
四明知禮, 『觀無量壽佛經疏妙宗鈔』
雲棲株宏, 『往生集』
元照, 『觀無量壽佛經義疏』
天頊, 『湖山錄』
天台智顛, 『維摩經略疏』
『觀無量壽佛經』
『無量壽經』
『樂邦文類』
『大覺國師文集』
『法華三昧懺儀』
『法華靈驗傳』
『靜明國師後集』
『朝鮮金石總覽』上

2. 圖錄

- 『고려시대의 불화』, 시공사, 1997.
『고려불화대전』, 국립중앙박물관, 2010.
『高麗, 영원한美』, 호암미술관, 1998.
『大勸進 重源』, 奈良國立博物館, 2006.
『聖地寧波』, 奈良國立博物館, 2009.

3. 著書 및 論著

- 高翊晉, 『圓妙了世의 白蓮結社와 그 思想의 動機』, 『佛教學報』15, 1978.
_____, 『白蓮社의 思想傳統과 天頊의 著述問題』, 『佛教學報』16, 1979.

- _____, 「원묘국사 요세의 백련결사」, 『한국천태사상연구』, 불교문화연구소, 1983.
- 金英美, 「大覺國師 義天의 阿彌陀信仰과 淨土觀」, 『歷史學報』156, 1997. 12.
- 金聖洙, 「新編諸宗教藏總錄의 著錄에 관한 研究」, 『도서관학논집』26, 1997.
- _____, 「13世紀 前期 刊行佛書의 分析」, 『書誌學研究』27, 2004.
- 金殷姬, 「『觀無量壽經疏妙宗鈔』의 淨土思想」, 『天台思想과 東洋文化』, 불지사, 1997.
- _____, 「四明知禮의 天台淨土觀 研究-『觀無量壽經疏妙宗鈔』를 中心으로」, 『淨土學研究』創刊號, 1998.
- 文明大, 「高麗 觀經變相圖의 研究」, 『佛教美術』6, 1981.
- 송은석, 「高麗 後期 觀經十六觀變相圖의 研究」, 서울대학교 대학원 고고미술사학과 석사학위논문, 1995.
- 柳麻理, 「中國 敦煌莫高窟(17窟)發見의 觀經變相圖(빠리 기메東洋博物館藏)와 韓國 觀經變相圖(日本 西福寺藏)의 比較고찰」, 『講座美術史』4, 한국미술사연구소, 1992.
- _____, 「韓國 觀經變相圖와 中國 觀經變相圖의 比較 研究」, 동국대학교 대학원 미술사학과 박사학위논문, 1993.
- 李永子, 「天頊의 天台思想」, 『佛教學報』17, 1980.
- _____, 「天因의 法華懺法の 展開」, 『韓國天台思想의 展開』, 민족사, 1988.
- 鄭炳三, 「고려 후기 鄭晏의 불서 간행과 불교신앙」, 『불교학연구』24, 2009.
- 陳景富, 「義天 스님의 宋나라에서의 求法活動과 그 弘法業績」, 『천태학연구』2, 천태불교문화연구원, 2000.
- 菜尚植, 「高麗後期 天台宗의 白蓮社 結社」, 『韓國史論』5, 國史編纂委員會, 1979.
- _____, 「白蓮社의 성립과 전개」, 『한국사-고려후기의 사상과 문화』21, 국사편찬위원회, 1996.
- 崔柄憲, 「義天과 宋의 天台宗」, 『가산이지관스님화갑기념논총 : 한국불교문화사상사(上)』, 가산불교문화진흥원, 1992.
- 洪潤植, 「高麗佛畫에 있어 來迎圖와 受記圖」, 『南都泳博士回甲記念論叢』, 1984.
- 林鳴宇, 『宋代天台教學의 研究』, 山喜房佛書林, 2003.
- 佐藤成順(사토 세이준), 『宋代佛敎의 研究-元照의 淨土敎』, 山喜房佛書林, 2001.
- 井手誠之輔(이데 세이노스키), 『日本の宋元佛畫』, 日本の美術 418, 至文堂, 2001년 3월.
- 高崎富士彦(다카나키 후지히코), 「觀經十六觀變相圖」, 『MUSEUM』100, 東京國立博物館, 1959.
- 大西磨希子(오니시 마키코), 「淨土寺阿彌陀三尊像의 造立における 重源의 宗教的意圖-元照의 淨土思想의 影響-」, 『美術史研究』34, 早稻田大學美術史學會, 1996. 12.
- 大原嘉豐(오하라 요시토요), 「觀經十六觀變相圖」, 『國華』1313, 2005.3.
- 賓田隆(쿠루마주 키오야지), 「南都阿彌陀寺所藏 觀經十六觀變相圖について」, 『大和文化研究』4-4, 1957.3.
- 山川嘸(아마카와 아키), 「長香寺本觀無量壽經十六觀變相圖について-宋代淨土敎繪畫의 受容と 展開-」, 『美術史』142, 1997.
- 西山厚(아츠시 니시야마), 「重源と勸進」, 『大勸進 重源』, 奈良國立博物館, 2006.

- 岩田茂樹(이와타 시게키), 「重源の生涯とその事蹟—佛像を中心に」, 『大勸進 重源』, 奈良國立博物館, 2006.
- 井手誠之輔(이데 세이노스케), 「高麗の阿彌陀畫像と普賢行願品」, 『美術研究』362, 1995.3.
- _____, 「華嚴思想과 高麗佛畫의 범주」, 『高麗時代の佛畫』, 시공사, 1997.
- 佐藤成順(사토 세이준), 「元照における戒律と淨土教」, 『宋代佛教の研究』, 山喜房佛書林, 2001.
- 増記隆介(마스키 료스케), 「南都眉間寺舊藏羅漢圖試論」, 『大和文華』106, 2001.
- 河原由雄(카와하라 요시오), 「觀經曼荼羅圖」, 『國華』1013, 1978.
- _____, 「淨土曼荼羅から迎攝圖へ—高麗・李朝觀經變相圖の展開」, 『日韓兩國所韓國佛教美術共同調査研究 研究成果報告書』, 奈良國立博物館, 1993.

국문초록

관상수행은 시각적인 상징물을 觀想함으로써 극락행을 추구하는 중요한 행의로서, 관경변상도라는 시각적 대상물이 필요하다. 관무량수경변상도는 『관경』의 서분의 내용을 형상화한 <서분변상도>와 본분의 내용을 그린 <16관변상도>가 있는데, 본 논문에서 다룬 주제는 『관경』에서 설한 아미타의 불세계를 16장면으로 나누어 형상화한 <16관변상도>이다.

고려후기의 <16관변상도>는 세련되면서도 화려하게 표현된 조형적 아름다움을 가지고 있을 뿐 아니라 고려후기의 독특한 정토신앙경향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매우 주목된다. 이 중 1300년경 조성된 일본 福井縣 西福寺 소장의 <16관변상도>는 『관경』에서 설하는 16관의 구성과 도상이 명확하게 표현되어 기준작으로 뿐 아니라 천태정토신앙 경향을 포함하고 있어 고려 후기 정토신앙의 형태를 밝히는데 매우 중요한 불화이다.

西福寺 <16관변상도>는 송 십육관변상도의 계보를 잇고 있으면서도 변화된 양상을 보여준다. 이 불화의 구성과 도상은 송대 절강성 사명지역불화와 친연성이 있으며, 정토신앙적인 측면에서는 절강지역을 중심으로 발전하였던 천태정토신앙의 영향이 강하게 보인다. 절강성 사명지역에서 11세기 전반 활약하였던 사명지례는 천태지의의 천태사상을 정통으로 계승하였던 인물이다. 그의 사상적인 영향력이 커지면서 천태의 수행관에 입각한 16모관의 수행이 성행하였고, 唐代와 달리 서분과 별도로 16관을 독립적으로 제작하여 수행용 불화로써 제작되었다.

사명지례의 천태정토사상 및 신앙은 고려에 미친 영향이 큰데, 특히 백련결사운동이 진행되면서 그 영향이 강하게 드러난다. 13세기 중엽 이후 사명지례가 주석했던 연경사 승려들과의 간접적인 교류와 사명지례의 『觀無量壽經疏妙宗抄』, 정토서인 『樂邦文類』와 같은 서적이 유통되면서 천태정토사상에 관한 깊이 있는 이해가 이루어졌다. 송대 정토서가 유통되면서 고려인들이 납득했던 정토관은 16관변상도에 새로운 도상으로 혹은 화면의 재구성을 통해 구현되었다. 서복사 <16관변상도>에 보이는 석가설법회와 아미타수기장면에서는 당시 고려인들의 천태정토에 관한 인식과 그들이 지향했던 정토관이 잘 드러난다.

고려 후기 사람들이 지향했던 왕생은 아미타정토로의 왕생보다는 그곳을 매개로 한 석가모니불의 절대세계인 상적광토로의 왕생이었다. 천태에서 방편으로 땅으로 인식하였던 아미타정토에서 왕생자는 잠시 머물며 보살행을 닦고, 나아가 이들은 중생구제를 향해 진력을 다한 후 성불의 수기를 받게 된다. 이러한 인식은 화면 하단의 보살의 형상으로 표현된 아미타성불수기를 통해 상징적으로 표현된다.

16모관 수행을 위해 조성되었던 서복사 <16관변상도>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염불과 아미타불의 타력적인 힘에 의한 정토왕생신앙을 담고 있지 않다. 천태에 입각한 왕생신앙을 16관변상도 안에 아미타수기와 석가설법장면으로 시각화함으로써, 16관의 관상수행을 거쳐 극락왕생하여 아미타불을 친견하여 성불의 수기를 받고 보살행을 통한 성불의 세계로 나아가간다는 고려인의 독자적인 정토관을 보여주었다.

Abstract

**Interpretations of the Belief in the Pure Land of
Cheontae through the Late Goryeo Illustrations of the Sixteen
Anapanasati Stages in Saifukuji Temple**

Yi Seung-hui *

The Scriptural Illustrations of the Sixteen Anapanasati Stages produced during the late Goryeo Period has attracted a lot attention from scholars by its refined and exuberant artistic expressions as well as the unique tradition of worshipping the Buddhist Pure Land established during the late Goryeo Period. Among many works of the same category, the illustrations collected by Saifukuji Temple in Fukui Prefecture in about 1300 is widely regarded as providing some criteria for the late Goryeo works as they contain a clear structure and icons of the sixteen anapanasati stages explicated in *The Sutra of Visualization of the Buddha of Infinite Life*. The icons in these works show close similarities with the Buddhist paintings produced in the Zhejiang Province during Song (960-1279), suggesting that the Goryeo's scriptural illustrations were originated from those of Song. In addition, the Saifukuji version exhibits a strong influence of the philosophy and worship of the Cheontae Pure Land which became deeply rooted in the late Goryeo society spurred by the movement of the White Lotus Society.

The Scriptural Illustrations of the Sixteen Anapanasati Stages in Saifukuji does not reflect the tradition of believing in the rebirth in the Pure Land by repeated mantra recitation and the vow of Amitabha Buddha. The belief in the rebirth in the Pure Land based on

* Hongik University

Cheontae is expressed by the Amitabha's prophecy and Shakyamuni's sermon captured in the illustrations. They also contain the Goryeo's own view of the Pure Land that the true rebirth in the world of Shakyamuni through the practices of bodhisattva after directly receiving the prophecy of Buddhahood from Amitabha in the Land of Bliss where one can be reborn through the sixteen anapanasati stages.